

##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17) 6장[2]

‘로마서 강해 17 (유익회 목사)’의 내용을 정리 및 보충한 것입니다.

### 6장[2] (5:19~6:2 보충설명)

앞서 설명한 5:19~6:2의 말씀이 한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파란만장했던 샘 칠더스(Sam Childers)의 삶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샘 칠더스 (1)]



1963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7학년(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담배, 마리화나를 했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Outlaws Motorcycle Club (무법자 폭주족 클럽)의 회원이 될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지르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며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샘 칠더스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번뇌가 생겼습니다. 자질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질 깨닫지 못했으나, 큰 죄를 짓고 나자 그의 양심 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새겨주신 법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아내의 권유에 의해 교회에 출석하였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례의 의미는 매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우리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 내리듯이 죄를 씻어 버린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 됨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인류의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의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성 원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6장 3-4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샘 칠더스가 의인이 된 것은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표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5:20a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샘 칠더스의 마음 속에 새겨 주신 율법(양심)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율법은 결국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전에는 우리가 범죄의식 없이 행해왔던 많은 잘못된 행동들이 큰 범죄였음’을 깨닫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샘 칠더스 (2)]

주님을 만나게 된 칠더스는 건축업에 종사하며, 이제는 범죄의 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선

교 보고를 듣던 그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방문해 보기로 결정하였고,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죄를 용서 받음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그는, 누구보다 더 큰 헌신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삶을 모두 바쳐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가 사역하던 수단 지역은 극심한 내전으로 인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아원과 학교를 세우고 폭력과 가난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5:20b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많은 죄를 지었던 그는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큰 죄를 용서 받은 자가 더욱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눅 12:48..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전에 설명한대로, ‘(6:1)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논리, 즉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리는 궤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많은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은혜 더 받자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샘 칠더스가 목숨까지 걸어가며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큰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샘 칠더스 (3)]

그의 사역의 가장 큰 위협은 조셉 코니라는 사이비 교주가 이끄는 ‘주님의 저항군 (Lord's Resistance Army; LRA)’이라는 무장단체였습니다. 이름만 보아서는 예수님을 위한 부대 같지만, 이 단체는 극악무도한 사이비 종교의 군사조직일 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여 남자 아이들은 소년병으로 훈련시키고, 여자 아이들은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는 악마와 같은 조직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직접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강한 전사로 키운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샘 칠더스가 세운 고아원과 학교에 침입하여 아이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눈 앞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며 납치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폭도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선교사가 총을 들고 폭도를 막아내는 그의 이야기는 ‘머신건 프리쳐’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 2011년 상영되었습니다.

5:21a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그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를 지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 앞에서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아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를 지배했다면,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을 버려두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그를 지

배하게 되자,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선교사인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였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총을 들고 아이들을 지키게 되었고, ‘머신건 프리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 〈선교사가 총으로 무장해도 되는가?〉

그가 총을 잡은 것에 대하여 ‘선교사가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 앞에서 아이들이 폭도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는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 [상황1] 예수님이 성전에서 ‘폭력(?)’을 쓰신 사건

요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채찍으로 양과 소를 때리셨는지 아니면 양과 소를 모는 사람을 치셨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람을 때리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양과 소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쏟으며 상을 엮으신 것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엄연히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교회

안의 부정부패를 목격했을 때,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얹어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이 본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까지 행사하시며 격하게 반응하신 이유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적 성전일 뿐이고, 참된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얹으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2:19 ..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 ..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상황이 매우 극단적 상황인 이유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상징적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 상징적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매우 극단적이기에, 예수님의 반응 역시 극단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샘 칠더스의 경우도 매우 극단적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총탄이 날아오고 있고, 눈 앞에서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극단적인 상황**이기에, 그는 총을 잡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총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위협 상황에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일반적인 상황만을 겪어본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상황2]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 26: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일부러 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폭력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방어적으로’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저항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  
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따라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본문도 샘 칠더스가 총을 잡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총에 맞고 인신매매 당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해석은 기계적으로 문자만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되며, 상황과 정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헤세드교회 홈페이지 <http://hsdch.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